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3월 1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3월 16일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과장 윤종구(043-870-5540), 박재훈 팀장(5541)

한-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논의 본격화

- 제1차 한-중 FTA TBT 위원회 북경에서 개최 -

□ 한중간에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·중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 무역기술장벽*(이하 TBT) 위원회가 3. 16.(수)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(이하 질검총국) 청사에서 개최되었다.

* 무역기술장벽(TBT : Technical Barrier's to Trade)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기술규정, 표준 및 시험인증(적합성평가절차)관련 불필요한 조치들임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제대식)은 한·중 양국이 한-중 FTA 발효 이후 대두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하여, **한-중 FTA 이행기구 산하 14개 위원회 중에서 TBT위원회를 가장 먼저 개최**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날 회의에서는 **TBT 위원회의 운영** 및 **향후 협력방안**과 **최근 양국의 TBT현안 해결방안**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.

□ TBT 위원회의 운영방안으로서 한-중 양국은 TBT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하기로 하되, TBT현안 해소가 시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,

□ 한-중 TBT 협력방안으로서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분야의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. 상호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전자파분야에 대한 **시험인증 상호인정**과 나아가 양국의 **강제인증제도**(중국 CCC인증, 한국 KC인증 등) **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**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,

○ 작년 9월에 체결된 **「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」**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국표원은 올해부터 대(對)중국 수출기업에 TBT애로 해소지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「한·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」에 대해서 소개하고, 중국의 표준관련 정보의 제공과 우리측 전문가의 중국 파견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.

□ 한-중 TBT 현안으로서 리튬이온전지, 화장품, 의료기기 등 주요교역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,

○ 이러한 **애로해소 방안**으로서, ▲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, ▲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, ▲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 합리화, ▲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, ▲[illegible] 통관검사 개선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 윤종구 과장은 "이번 제1차 한-중 FTA TBT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의 **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애로 해소가 한층 탄력**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, 양국간의 근본적인 TBT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의 표준과 **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규제협력 방안**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"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윤종구 과장(☎043-870-5540), 박재훈 팀장(☎043-870-55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3-16 13:26:36